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0-26 (월요일)

이 기록은 한국과 미국 시장의 주요 지표를 매일 모아, 그 '변화'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읽으려는 시도입니다. 경제 기사를 자주 보지 않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풀어 쓰고 숫자에는 맥락을 붙였습니다. 수집 시각은 10월 26일 밤 9시 8분(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줄]

코스피가 5,469.47(-1.46%)로 내려 4월 6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사흘 연속 하락(-3.26%)해 7월 말 이후 최저로 밀렸습니다. 기관이 또 6천억원 넘게 받아냈지만, 이번에는 외국인 매도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0/26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왜 보는가: 하루 시장의 결론이자, 아래 모든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 코스피 5,469.47 (-80.83, -1.46%). 종가 기준 4월 6일(5,450.33) 이후 약 7개월 만의 최저입니다.
- 코스닥 727.21 (-24.48, -3.26%). 사흘째 하락이며 7월 말 이후 최저입니다.
- 삼성전자 213,000원 (-1.16%), SK하이닉스 1,275,000원 (-0.16%), 삼성전기 1,118,000원 (-0.36%).
- 전력기기 3종(전력 설비 수출주): HD현대일렉트릭 447,000원 (-4.89%), 효성중공업 1,853,000원 (-1.28%), LS일렉트릭 152,900원 (-2.55%).
출처: 네이버증권(m.stock.naver.com), 연합뉴스 마감 종합(16:09)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6126951008
※ 연합 기사는 '주요 이벤트를 앞둔 관망 심리에 반등이 제한됐다'고 전했습니다.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왜 보는가: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누가' 움직였는지에 따라 다음 날 흐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코스피: 외국인 -6,972억원 순매도, 기관 +6,110억원 순매수(증권사 등 금융투자 +6,675억원, 연기금 등 +454억원, 투자신탁 -1,274억원), 개인 +474억원, 기타법인 +371억원.
- 코스닥: 외국인 +391억원, 기관 -1,279억원, 개인 +854억원, 기타법인 +23억원.
- 누적(9/23부터 20거래일,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 근사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28.4조원, 코스닥에서 약 8,10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출처: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15:35, KRX·연합인포맥스) https://stock.mk.co.kr/news/view/1181195

※ 장 마감 후 잠정 집계(외국인 -7,429억원 등)는 3시 35분 표와 약간 다릅니다. 집계 시각 차이이니 참고로 봐 주세요.

■ 미국 시장 (10/23 금요일 마감 - 한국보다 반나절 늦게 끝나는 시장이라 항상 전날 밤 값입니다)

왜 보는가: 최근 한국 시장은 미국 기술주의 밤사이 움직임을 다음 날 아침에 물려받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나스닥 종합 25,955.34 (-0.21%), S&P500 7,623.68 (-0.52%), 다우 52,215.16 (-1.23%).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 미국 반도체 대표 30개사 묶음) 10,779.46 (+0.44%). 전날 -6.7% 급락 뒤 숨 고르기였습니다.
- 개별 종목: 엔비디아 210.96달러 (-0.59%), 마이크론 877.55달러 (+2.46%), 샌디스크 1,238.03달러 (-1.82%), 팔란티어 196.75달러 (+0.29%), 아이온큐 31.27달러 (+0.35%), 아마존 248.00달러 (-0.95%), 마이크로소프트 524.51달러 (+0.66%), 구글(알파벳) 320.21달러 (-1.24%), 메타 642.62달러 (-0.96%), 오라클 126.16달러 (+0.49%), 코어위브 54.24달러 (-2.46%), 블루아울 9.36달러 (-3.60%).
출처: Yahoo Finance(finance.yahoo.com/quote/각 심볼)

■ 채권·환율·원자재 - 이번 주말의 새 변수는 원유입니다

왜 보는가: 주식과 다른 자산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원유: 금요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시설 공격과 미국·이란 긴장으로 브렌트유가 116.72달러(+3.1%, 4월 29일 이후 최고, 주간 +6.2%), 서부텍사스유(WTI)가 103.27달러(+3.8%)로 급등 마감했습니다(WSJ). 월요일에는 '비싸진 기름값이 결국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경계 속에 되돌림이 나와, 밤 9시 현재 브렌트 약 110달러(금요 종가 대비 약 -5.8%), WTI 101.07달러(-2.1%)입니다(Yahoo 진행 중 값. CNBC는 낮 2시경 브렌트 114.51달러 -1.9%로 보도).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00% (10/23, 전날 대비 +0.04%p). 20년물 5.37%, 30년물 5.33%. 최근 7일 새 장기 국채 입찰 결과는 없었습니다.
- 한국 국고채 3년 3.788% (16:16), 일본 국채 30년 3.827% (18:58).
- 원/달러 환율: 마감 기준가 1,323.1원 (-1.5원, 15:30). 밤 9시 현재 약 1,324.4원 (Yahoo).
- 선물(밤 9시 수집, 진행 중 세션 값): 나스닥100 선물 29,276.75 (+0.55%), 닛케이 선물 62,900 (+0.33%), 금 4,030.10달러 (+0.55%).
- 미국 항공유·경유 주간 통계(EIA)는 10/28에 새로 발표됩니다(직전 10/21 발표분: 항공유 4.632, 경유 5.265달러/갤런).
출처: 미 재무부 일일 금리(home.treasury.gov), TreasuryDirect, 네이버증권, Yahoo Finance, WSJ 10/23 (wsj.com/world/middle-east/oil-prices-rise-as-middle-east-risks-persist-c1262364), CNBC 10/26 (cnbc.com/2026/10/26/oil-prices-today-wti-brent.html)

■ AI 가격 신호 3종 (10/23 미국 마감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열기가 식고 있는가'를 뉴스가 아니라 가격으로 확인하기 위해,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1. 반도체 대 시장 전체의 괴리: 최근 20거래일 동안 반도체지수(SOX)는 -14.91%, 나스닥은 -4.11%. 반도체가 시장보다 10.8%p 더 빠졌습니다(지난 금요일 기록 -10.6%p에서 소폭 확대). 상승장의 선두였던 반도체가 계속 더 약한 상태입니다. [계산: Yahoo 일별 종가 기준]

2. 빅4 대 취약 사업자: AI에 큰돈을 쓰는 초대형 4사(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메타)의 6개월 최고가 대비 평균 낙폭은 -13.5%(MS -3.5%, 구글 -20.5%, 아마존 -12.7%, 메타 -17.4%). 구글이 처음으로 -20%선을 넘었습니다. 반면 AI 인프라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쪽 3사(오라클 -49.2%, 코어위브 -60.7%, 블루아울 -26.1%)는 평균 -45.3%입니다.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그림은 아직 아니고, 빚으로 움직이는 사슬에 압력이 집중된 그림이 이어집니다.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낙폭: 현재 25,955.34로, 52주 최고 종가(10/6, 27,599.79)보다 -5.96%입니다. 관례적으로 '조정'이라 부르는 -10%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판단]

- 금요일 미국 시장이 숨을 고르는 동안 한국은 월요일에 7개월 최저로 한 발 더 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기관 매수가 지수를 플러스로 뒤집었지만, 오늘은 같은 규모의 기관 방어(+6,110억원)에도 외국인 매도와 관망 심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대 기관 방어'의 힘겨루기에서 균형이 살짝 아래로 기운 하루였습니다.
- 여기에 AI 조정과는 다른 축의 새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중동발 원유 급등입니다.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는 물가와 무역수지 부담으로 이어지는 재료라, 월요일 되돌림에도 호티 공격이 이어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현재 위치는 '위험 회피' 쪽이라는 지난 판단을 유지하되 무게를 조금 더 얹습니다. 근거는 (1) 코스피 7개월 최저와 코스닥 3연속 하락, (2) 반도체-나스닥 괴리(-10.8%p) 지속, (3) 원유라는 새 충격의 추가입니다.
- 이 판단이 바뀌는 조건: 반도체-나스닥 20일 괴리가 -5%p 안으로 좁혀지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서면 '중립'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반대로 나스닥이 52주 고점 대비 -10%에 진입하거나 빅4 평균 낙폭이 -20%를 넘으면 강화하고, 브렌트유가 120달러 위에 안착하면 물가 충격 경로로 같은 방향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종목의 매매 지시도 아닙니다.

[복기]

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0/19 판단: "코스피 종가가 5,768.01 아래일 것" (T+5, 10/26 검증) → 실제 종가 5,469.47. 적중.

- 10/23 판단: "코스피 종가가 5,550.30 아래일 것" (T+1, 10/26 검증) → 실제 종가 5,469.47. 적중.
- 해석: 두 판단이 함께 적중했지만, 같은 하락 추세 안의 연속 판단은 서로 독립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는 '내린다'는 판단이 계속 맞기 쉽고, 진짜 어려운 시험은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한계를 함께 기록합니다. 적중·빗나감 기록이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469.47 아래일 것" - T+1(10/27, 화)과 T+5(11/2, 월)에 각각 검증합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미확인 - 검증 가능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을 미루는 조항)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기간 만료) - 9/24 오라클-블루아울 Project Jupiter 사건의 30일 유효 기간이 10/24에 끝났고, 주말 사이 새로운 불가항력·지급유예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자체는 계속됩니다: 주말 뉴멕시코 주민 반대 집회에 대해 오라클이 "가스터빈 대신 블룸에너지 연료전지로 설계를 바꾸고, 배출 상한을 35% 낮추며, 2GW 재생에너지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KVIA 10/25). 금융 경색보다는 환경·허가 리스크 관리 국면으로 읽힙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충족 - APO -21.4%, KKR -20.8%, BX -21.0%로 3사 모두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지난 기록은 2사). (10/23 종가)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확인 - 확인된 하향 공시가 없습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V·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 HD현대일렉트릭 -68.5%, 효성중공업 -59.7%, LS일렉트릭 -52.0%에 이어 GEV도 -30.6%로 -30%선에 진입해 4종 모두 충족입니다. [계산]
- 종합: B가 기간 만료로 빠지면서 충족 조건은 C·E 2개('3단계' 해당)입니다. A·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가능 범위 3~5단계). 조건 수는 줄었지만 C·E의 내부 강도는 오히려 세졌다는 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끝)